

-지요?

~지요? — 서로 아는 사실 확인하기

이미 서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합니다. 말할 때는 보통 -조로 줄여 쓰며, 실제 한국어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미 중 하나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·형용사	-지요?	좋다 → 좋지요?
ㄴ 어간은 ㄴ 유 지	-지요?	만들다 → 만들지요?
구어 축약	-죠?	좋죠?
과거	-았/었지요?	갔지요?
부드러운 서술	물음표 없음	맛있쥬
부드러운 제안	-(으)시쥬	가시쥬

■ 언제 쓰나요

-지요는 어떤 어간에든 아무 변화 없이 붙습니다. ㄴ도 그대로 남습니다: 만들지요. 시제는 앞에 붙습니다: 갔지요, 좋았지요. 말할 때는 거의 항상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: -쥬.

핵심 기능은 확인입니다. 한국 음식 좋아하시쥬? 이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묻는 말입니다. 이는 새로운 정보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반대입니다: -네요

물음표 없이 쓰면 ‘물론이다’, ‘그렇지’에 가깝게 말을 부드럽게 해 줍니다: 그럼요, 맛있쥬. 높임과 함께 쓰면 부드러운 제안이 되기도 합니다: 이 쪽으로 가시쥬.

■ 예문

- 1 오늘 날씨 좋지요?
- 2 한국 음식 좋아하시쥬?
- 3 어제 만났지요?
- 4 그건 좀 비싸쥬.
- 5 학생이시쥬?
- 6 네, 그렇쥬.

■ 비교

-네요
두 어미는 정보를 깔끔하게 나눕니다. -지요?는 서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, -네요는 방금 알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.
맛있쥬? (맛있지 않아요? 동의 구함) / 맛있네요! (아, 맛있다 — 새로 앎)

일반 의문문
일반 의문문은 모르는 정보를 묻습니다. -지요?는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. 근거 없이 쓰면 넘겨짚는 것처럼 들립니다.
그 영화 봤어요? (봤는지 물음) / 그 영화 봤쥬? (봤잖아요, 그렇쥬?)

-잖아요
-잖아요는 상대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키며, 때로 답답한 느낌이 섞입니다. -지요?는 더 친근하고 진짜로 대답을 청합니다.
비가 오쥬? (비가 오지요, 그렇쥬?) / 비가 오잖아요. (보다시피 비가 오잖아요)

■ 주의

✗ 처음 뵙겠습니다. 한국 사람이시쥬?
○ 처음 뵙겠습니다. 한국 분이세요?
-지요?는 공유된 지식을 전제합니다. 처음 만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반 의문문이 예의 바릅니다.
✗ 날씨가 좋쥬?
○ 날씨가 좋쥬?
지요는 ㅈ + ㅍ인 조로 줄어듭니다. 쥬는 다른 음절로, 맞춤법 오류입니다.
✗ 이 음식을 만들지요? — ‘아, 이걸 만드셨군요’라는 뜻으로
○ 이 음식을 만드셨네요.
새로 알게 된 정보라면 -네요를 씁니다. -지요?를 쓰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